서 명 지

은평구 녹번동(주거개선지구)에서 지내는 동네 개들은 사람을 해치는 '해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한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세대를 거쳐서 특별히 주인이 있던 개들도 아닙니다.

이 동네의 개들은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가 동네에 내려오는 것을 막고 동네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반려견은 사람이 보호자이지만, 우리 동네 개들은 어쩌면 동네 주민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서로 돌보거나 보호하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개들이 개체수가 급증하고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교란시킨다면 문제화되고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개체규모를 유지하고 동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사람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식물 역시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이 존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상태를 보장해주십시오.

누군가는 동네 개들이 없어져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지나가겠지만, 동네 개들이 있어서 안전함,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동네 거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서울시와 은평구청은 일부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녹번동 동네 개들을 무작위로 포획하여 잡아가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개들과 함께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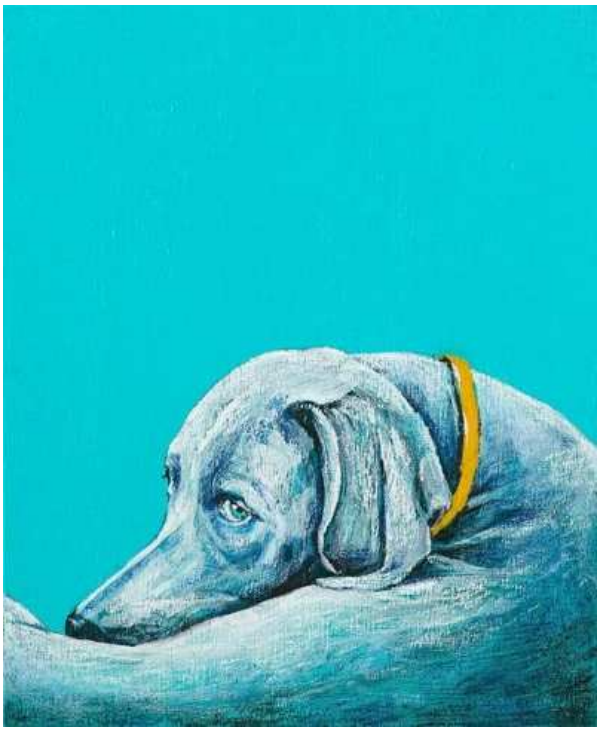
이 자료는 서울시 등에 제출될 서명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작은 서명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위의 서명에 동의하시거나,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적으신 후 **녹번동 1-80(진흥로16길 21) 현관앞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수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 적기 어려우시다면 이메일 0220hey@naver.com 로 의견 보내주셔도 됩니다)

번호	이름과 연락처	의견
1	이름 연락처 	
2	이름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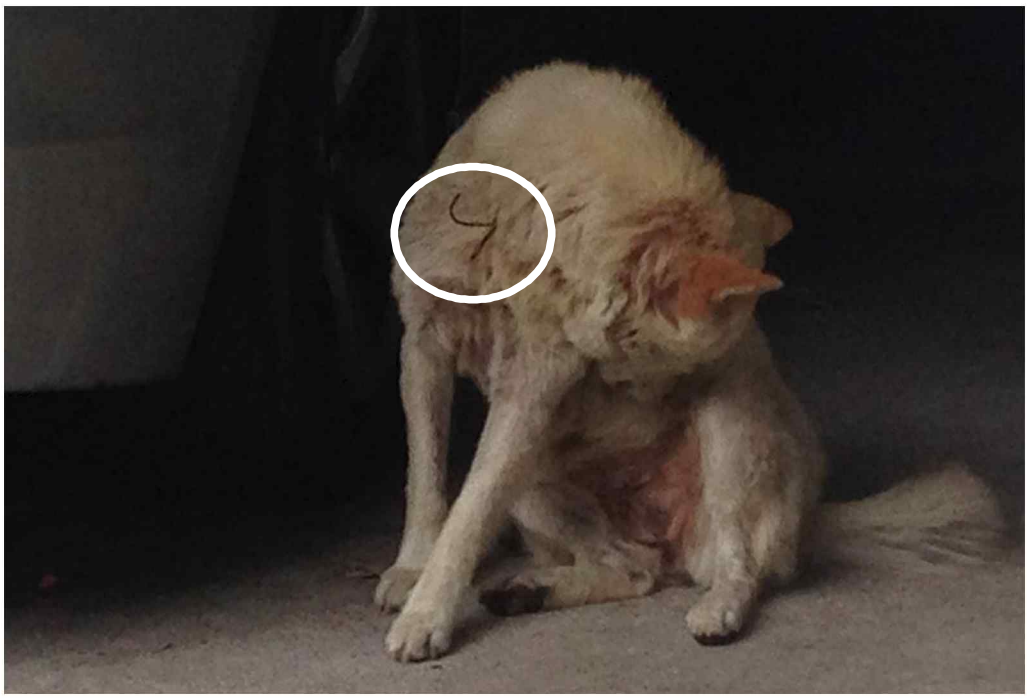
인사와 서명 요청문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 녹번동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올해 들어 부쩍 동네 개들 문제로 잠을 못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최근 몇달간 구청 직원들과 포수가 동네 강아지들을 마취총을 쏘아 잡아가는 일들도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동네의 주인 없는 개들은 언론에서는 '들개'로 불려지기도 하는 일종의 유기견들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이 동네가 재개발 되면서 몇몇 개들이 동네에 방치된 때부터 터를 잡았던 것이지요.(어쩌면 이들도 이 동네 선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그런데 특히 올해 들어서 어떤 분들의 민원에 의해 구청 직원들과 포수들이 와서 동네 강아지와 어미들을 수차례 잡아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 직원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개들을 없애달라는 민원 외에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다른 의견들은 듣지 못하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서로 나눠보고 개들을 없애달라는 의견 외의 의견도 있다면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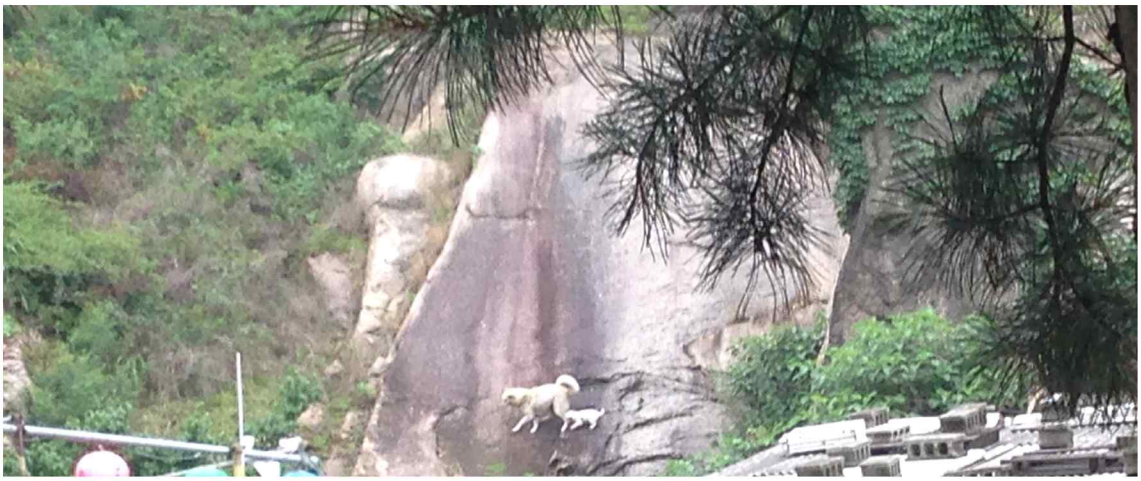
누가 더 우선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누가 어떤 점에서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함께 그 문제를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서명지와 의견을 구하는 요청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로 봐주시고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 서명을,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동의하지 않으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가장 최근의 우리 동네 개들이 어느 주차장에서 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몇 달 전 새끼들을 낳은 이 어미개는 며칠 전에는 덫으로 보이는 철사줄에 목과 앞다리까지 심하게 죄어진 채 지내고 있습니다.



위의 어미개는 스스로 낳은 여러 새끼들 중 모두 살아남기 어려울 거 같으니까 다른 새끼들을 도태시키고 하나만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어릴 때 이후로 키워보지 않은 지라,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동네 주민'들처럼 '동네 개'들이라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라고만 무심코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포수가 여러 마리를 포획해갔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마취총으로 인해 다쳐가며 잡혀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공포와 긴장감이 저의 몸과 주변에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문제, 강아지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존재하는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수와 구청직원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동네에 살고 계시면서 동네 강아지들로 인해서 위협과 위험을 느끼셨다면 저는 그 분들은 이미 일찍이 이곳을 떠나시거나, 혹은 통반장 등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셨을 것입니다. 즉 '민원'들은 아마도 이 동네에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이곳을 경유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처럼, 어떤 분들은 동네 개들이 길목에 '사자'처럼 버티고 있거나 차가 와도 누워 있는 모습 등을 본다면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안을 덜 느끼거나 혹은 다른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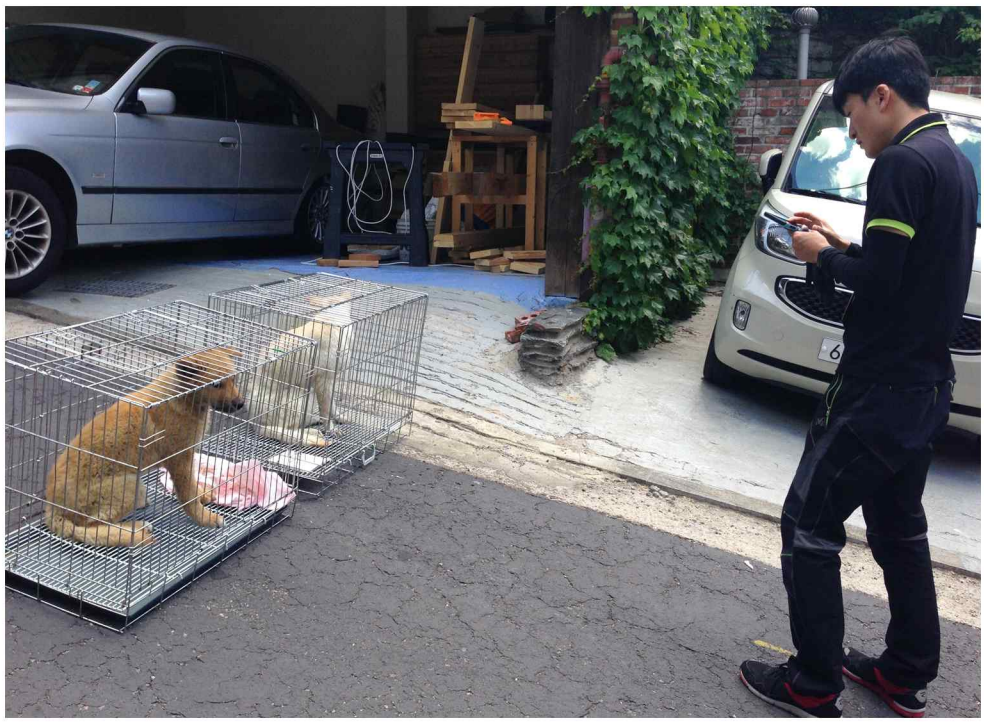
우리 동네 개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최근 수개월간 멧돼지들이 종종 내려오면 동네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밤, 새벽에 짖어대며 멧돼지들이 동네가까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동물보호단체들의 견해에 따르면, 멧돼지들 중에서도 산에서 다른 멧돼지들보다 약해서 밀려난 멧돼지들이 산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종종 산 아래로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주로 청소년멧돼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멧돼지들도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이 없을 시간과 장소라 생각되는 곳에 오거나 아무 본능 감각도 별로 없는 새끼멧돼지가 멋모르고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새벽에 특정 개 두 마리가 특히 계속 짖어대서 밖을 보았습니다. 이 개들이 평소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짖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내다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날 개들이 멧돼지를 계속 쫓아다니며 짖어대고 몰아내는 장면을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매우 자주 멧돼지가 우리 동네에 출몰하고 있지요.)

동네 개들이 이 동네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들도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는 우리 동네 개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집에는 놀러 오지 못하고 몇 번을 돌아가시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무조건 좋은 점만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건 동물이건 좋은 점만 있다고 같이 살 수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죽이거나 몰아내는 방식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는 개, 고양이들에 대해서 우리 동네 개들이 비록 사람과 일대일 관계 맺은 주인 있는 개들은 아니지만, 잘 어울려 사는 거주자들입니다.

저도 동네 개들을 만지거나 잘 보살펴주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꾸준히 이 개들에 대해 관심 갖고 개밥을 매달 시켜서 매일 밥과 간식을 챙겨주시고, 집의 개를 보살피는 것과 더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저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서 고마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개들이 어떤 이들에게 위협과 위험을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

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원을 넣으면 현재 서울시와 구청이 하는 일은 마취총으로 잡아가서 10일 혹은 20일 이내로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키우는 책임을 지지 못해도 생명을 무슨 권리로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 몇분과 이런 문제로 상의해보기도 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최대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개들의 개체수가 급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성화 하면서 동네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의견 제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은평구 두 지역에서 반려동물 중성화와 등록을 신청 받으며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중성화 의견을 듣고 마침 모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우리 동네 개들 중 남은 강아지들을 두 마리 데려가서 중성화수술 후 이곳에 다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 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이곳에 다시 풀린 이 두 마리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성화가 하나의 대안이지만 아직 우리 동네에서 적합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개 밥과 영양식들을 직접 만들고 챙겨주시는 주민분께서는 매일 몸이 힘들어도 걱정되어 직접 찾아다니며 안녕을 살피시곤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개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날까봐 강아지들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이들과 우리가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의견들을 나눈다면 최소한 정답은 아니어도, 후회는 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있지만,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의견들을 누구에게 같이 나눠야 할지 모르셨다면 우리가 함께 의견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1. 아래 첨부하는 서명지에 동의하신다면 이름과 주소(호수는 안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주소)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됩니다)

2. 동의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의견과 이유인지 서명지가 아닌 다른 별첨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와 이름도 같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됩니다)

3. 동네 강아지들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앞으로도 나누길 원하신다면 연락처 옆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통 방법은 다시 같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4. 서명지는 동의하신다면 **7월 20일까지 서명 하셔서 녹번동 1-80(진흥로16길 21) 현관앞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수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